

제4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



대통령 소속 제4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2월 3일(화) 출범하였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위원 15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4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장(임기 2년)에 최은주(崔銀珠)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촉하였다. 최은주 위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미국 드렉셀 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도서관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4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직해오면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도서관협회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도서관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정책의 중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게 된다.

신임 최은주 위원장은 “도서관은 지식·창조 시대의 핵심기관으로, 우리 국민의 평생학습 및 창조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행복시대의 문화융성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최은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립세종도서관 개관식 참석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최은주 위원장은 12월 12일(목)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국립세종도서관 개관행사에 참석하였다.

최은주 위원장은 개관식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역 분관으로서, 그리고 지역 최초의 국립도서관으로 그 첫발을 내딛는 세종도서관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종도서관은 그 이름에 걸맞게 지역은 물론, 나라 전체를 문화융성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크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축사를 하였다.

개관식에 앞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안철상 법원도서관 관장, 윤희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등과 함께 국립세종도서관 현판을 제막하고, 개관식 후에 조영주 국립세종도서관장의 안내로 국립세종도서관 내부 곳곳을 참관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기사제공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첫 정책전문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의 첫 지방 분관이자, 국내 첫 정책전문도서관인 국립세종도서관(관장 조영주)이 12일(목)에 개관식을 진행하였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정보협력망’을 구축하여, 정부는

물론 공공·민간의 연구기관들이 생산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정책자료의 공유 및 공동활용 등,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정부세종청사를 마주보는 위치에 건립되었으며, 공간 구성은 정책자료실,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등 3개의 자료실 외에도, 호수마루·햇살마루 등 이용자들을 위한 2개의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어린이놀이터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골고루 갖추었다. 지하 1층 및 지하 2층에 마련된 서고에는 총 330만 권을 보관할 수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정책정보협력망’ 구축에 참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서고공간이 부족한 기관들의 정책 자료를 기증받아 보관해주는 수탁자료 보관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국제 저작권 컨퍼런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한 ‘2013 서울 국제 저작권 컨퍼런스’가 11월 26일(화)~27일(수)까지 삼성동 인터콘티넨털코엑스에서 “창조경제 시대의 저작권 생태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및 카이스트 이민화 초빙교수 등 국내외에서 분야별 발제자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저작권의 시각에서 창조경제를 조망하고, 이와 더불어 저작권 생태계 균형을 위한 국

내외 입법동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창조경제 시대, 제2의 창작 촉진을 위한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활용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사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제2차 정책포럼 개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공동대표 이주영, 신기남) 제2차 정책포럼이 12월 11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도서관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여야의원과 도서관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명숙 의원과 윤희운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남태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관법」 개정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현행 사서발급제도도 인증제 실시나 국가자격증 도입 등을 검토해 사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특히 “「도서관법」을 기본법으로 「대학도서관진흥법」등 관종별로 분법체제로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변우렬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는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을 개정하고,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보정지수도 2011년 사서교사 현원 519명이 아닌 사서교사 총 정원 4,430명을 기준으로 바

꿔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학교도서관 예산 역시 임의규정으로 차이가 많으므로 학교전체 운영비의 5%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곽동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 추이 및 방향”으로 “현재의 「도서관법」 속에 대학도서관 관련 내용을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특성인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면서 “하루 빨리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발표 후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의 개정, 제정에 대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윤희윤)가 주관하는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담당자 워크숍이 12월 5일(목)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우응순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위원이 “공공도서관과 인문학이 만날 때는”의 기조발표와, 김태희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운영 사업팀장의 “인문학 논의와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영의 쟁점들”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의 “영주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사례”, 학나래도서관의 “길 위의 인문학, 인문학 융성의 발화점이 되다”, 반달어린이도서관의 “반달어린이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사례” 등 총 3편의 사례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2013년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회장 권계순)는 11월 29일(금) 경북 안동 안동학가산온천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도서관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추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윤희윤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이 “도서관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고민과 해법”을, 김용전 작가가 “성공적 직장생활의 원리”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조은희 경상북도립청도공공도서관 사서가 “책 더하기 행복 나누기” 주제로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기사제공 : 한국도서관협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중지적재산권 국제학술컨퍼런스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사)한중지적재산권학회(학회장 박영길)와 공동으로 한중지적재산권 국제 학술컨퍼런스를 12월 5일(목)~6일(금) 양일간 개최하였다. “저작권 제도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양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의 발제와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토론으로 구성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이용자 간 권익균형을 점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 전문가들은 초고속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사회의 인프라로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저작자의 창작, 전달매체의 유통, 소비자의 이용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식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제한의 균형, 적절한 저작물 사용료 책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중지적재산권 국제 학술 컨퍼런스는 한·중 2개국 「지적재산권법」 제 전개와 발전에 따른 최근동향을 살피고, 양국 저작권 정책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균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기사제공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도서관협회연맹, Google 도서 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는 11월 25일(월) 「IFLA welcomes US Court decision on legality of Google Books digitization; cautions against growing

digital information divide for libraries elsewhere」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Google 도서를 둘러싼 Google과 미국의 저작자 단체 Authors Guild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Denny Chin 판사가 11월 14일(목)에 내린 Google 도서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Authors Guild의 고소는 기각하는 결정을 IFLA는 지지한다는 것이다. 성명서 중에서는 Chin 판사의 결정은 미국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도서관과 세계의 다른 도서관 간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를 기초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사출처 : <http://www.ifla.org>

국제도서관협회연맹, UNESCO 등 밴쿠버 선언에 대한 후속 회의 헤이그에서 개최



밴쿠버 선언에 대한 후속 회의가 12월 5일(목)~6일(금) 헤이그에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UNESCO, 국제기록보존회의(ICA)에 의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 대

한 디지털 보존의 중요성과 그들이 이전에 수집한 중요한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보존 활동에 콘텐츠 제작자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연구 발표가 이루어졌다. 2013년 1월에 채택된 밴쿠버 선언은 UNESCO의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및 장기 저장에 관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

이트(<http://www.ifla.org/node/82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 : <http://www.ifla.org>

국제도서관협회연맹, Text and Data Mining(TDM)에 대한 성명 승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12월 12일(목) TDM에 대한 성명을 공표하였다. 정부, 학술, 경제, 사회 활동을 통해 매일 많은 양의 정보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환경에서 TDM은 개인과 기관이 데이터의 패턴과 동향, 변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식의 새로운 효율성과 형식을 개발하는 중요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TDM은 자료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자료의 복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TDM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저작권법」과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 영국에서 발표된 「지식재산권과 성장에 관한 하그리브스 검토보고서」에서는 TDM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예외규정의 채택을 권고했으며, 혁신과 새로운 지식 개발을 지원함에 텍스트 마이닝과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이점을 제공하는지를 강조하였다.

기사출처 : <http://www.ifla.org>

연구도서관협회, 회원 도서관 통계 2011-2012년 버전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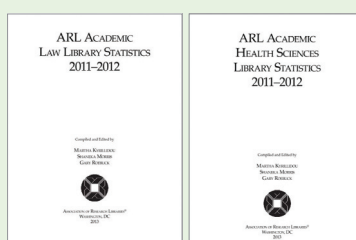


연구도서관협회(ARL)가 11월 25일(월) 회원 도서관 통계 2011-2012년 버전 “ARL Statistics 2011-2012”을 발표하였다. 이 통계에서는 125개의 회원 도서관 인력, 예산, 서비스 등에 관해 정리하고 있다. 회원 도서관 현황은 대학 도서관이 115개(미국 99개, 캐나다 16개), 나머지 10개는 공공·정부·연구 도서관(미국 9개, 캐

나다 1개)이며, 2011-2012년도 전체 예산 45억 달러 중 33억 달러가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publications.arl.org/ARL-Statistics-2011-20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 : <http://www.arl.org>

연구도서관협회, 법률도서관과 보건과학도서관 통계 2011-2012년 버전 간행



연구도서관협회(ARL)가 11월 25일(월) 2011-2012년 법률도서관과 보건과학도서관 통계를 간행했다고 발표하였다. 대상은 ARL 회원 법률도서관 74개관, 보건과학도서관 61개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publications.arl.org/ARL-Academic-Law-Library-Statistics-2011-2012>, <http://publications.arl.org/ARL-Academic-Health-Sciences-Library-Statistics-2011-20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 : <http://www.arl.org>

유럽연구도서관협회,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성명을 공표

유럽연구도서관협회(LIBER)는 12월 17일(화) 유럽의 저작권제도 개혁에 관한 성명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Copyright in the Digital Age)」을 발표하였다. LIBER는 성명서를 통해 유럽의 저작권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주요 내용으로 저작권은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해야 하며, 공공자금이 지원된 연구의 접근과 이용은 저작권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접근은 저작권 예외를 지

지해야 한다는 세 가지 상위 원칙을 담고 있다. 이번 성명서에 대한 LIBER의 입장은 EU 저작권 규칙의 검토에 대한 유럽위원회(EC)의 공개자문에 대한 응답으로 연구도서관의 관점에서 주요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강조하였다. 또한 EC의 공개자문을 통해 유럽의 도서관이 저작권 프레임워크에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유일한 기회로 현재 저작권 체계가 도서관이 정보에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유럽의 연구와 혁신의 진전을 억압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출처 : <http://libereurope.eu>

일본도서관협회, '특정 개인 보호 법안에 대한 성명' 발표

일본도서관협회(JLA)는 12월 5일(목)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特定秘密保護法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12월 6일(금)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으며, 「특정비밀보호법」이란 일본의 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은닉이 필요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하면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말한다. 일본도서관협회는 성명서에서 “도서관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알 권리를 가진 국민들에게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러한 인식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도서관 및 정보전문기관에도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보도,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탐색·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일본도서관협회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위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웹사이트

트(http://www.jla.or.jp/Portals/0/html/jiyu/tokuteihimitsu_appeal.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 : <http://www.jla.or.jp>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FRANKLIN' 공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도서관이 12월 4일(수) 디지털도서관 'FRANKLIN'을 공개하였다. 'FRANKLIN'은

350,000페이지의 문서와 공개된 2,000장의 사진 외에도 아직 디지털화 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해제(解題)도 공개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www.fdrlibrary.marist.edu/archives/collections/frankl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 : <http://fdrlibrary.wordpress.com>

영국도서관, 100만장 이상의 이미지 Flickr Commons에서 공개

영국도서관(BL)이 12월 12일(목)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도서관에서 뽑은 100만장 이상의 사진을 사진 공유 사이트 Flickr Commons에서 공개하였다. 영국도서관이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서 전자화 프로젝트에서 스캔된 이미지에서부터 아름다운 일러스트, 캐리커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사출처 : <http://britishlibrary.typepad.co.uk>